

“내란 앞잡이 안돼”... 나경원 간사 선임 놓고 법사위 ‘시끌’

국힘, 사보임 안전 상정 반대 부딪치자 항의하다 집단 퇴장 민주·혁신당,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 의결...내일 개최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독재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나 간사 선임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에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5선인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사보임 건을 안전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그를 ‘내란 앞잡이’로 규정하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이 법사위 안전으로 채택되지 않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자리로 나가 항의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주고받으며 법사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제한한다고 항의하면서 “추 위원장은 6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려고 했다.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 텐데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안전을 간사끼리 협의해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이 빠졌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이날 안전으로 채택한 ‘검찰개혁 공청

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두고도 “검찰 관련 공청회”라는 가치중립적 단어를 써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장악법’, ‘검찰해체법’이라고 부른다. 검찰개혁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두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 지금 와서 ‘이때다’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윤석열 영장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자들이 여기 와서 법사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아무것도 모른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나 의원의 이런 발언을 재차 거론하면서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나 간사 선임 자체에 반대한다”며 “초선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간사를 하고 싶으면 내란 혐의 자수를 하고 어떻게 내란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신경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점전 등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지하철 2호선·전남 스마트병원’ 내년 예산안 포함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비 1543억 책정...10개 신규사업 예산 반영”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전남대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등 광주 현안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을)은 2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 주요 사업에 국비 1543억원이 책정되는 등 지역 현안 예산이 알차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 지역 산업과 문화 발전을 선도할 10개 신규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국비지원 사업 기획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모두 반영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공을 들인 신규사업은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복합센터 신축(2억원), AI 디지털 노화연구실증센터 구축(6억원), 한강 작가 문학 체험공간 조성(1억원), 국립현대미술관 건립(5억원), 국립역사박물관 건립(10억원), AI 디지털 에스테

틱 의료기기 글로벌 사업화 지원(10억원), 아시아 스토리 IP 활용 웹툰 제작(12억원) 등이다.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복합센터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 핵심사업으로, AI 기반 공원이용 정보 제공, 탐방객 체험, 환경·생태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기능센터를 건설하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됐다.
 안 의원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전국 23개 국립공원 가운데 유일하게 탐방안내소가 없어 지역민과 탐방객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신축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고, 무등산이 체험·힐링·학습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이자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위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전남대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총사업비 9645억원)도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한강 작가 문학 체험공간 조성사업(100억원)을 위해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광주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총사업비 1665억원이 반영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콘텐츠 개발·운영 예산 690억원도 전년 대비 38억원(5.8%) 증액 반영됐다.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벨트 조성사업(총사업비 190억원)도 6억원이 반영됐고, AI 기반 총장장의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9억원·총사업비 38억원)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2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사업들은 사업계획 구체화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방대를 서울대 수준 투자·육성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디지털 문해력·AI 기초 역량 강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권 침해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지도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학교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꽃다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며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표적 교육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최 후보자는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교육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의 모든 학생이 서울의 특정 대학에 쏠리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허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방 대학에도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문해력과 AI 기초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면서 “AI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생각하는 힘,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인간다운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시민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민주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광주·전남 차승세 유일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 후보 12명 명단에 광주·전남에서는 차승세 한 명만 이름을 올렸다.
 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배심원 심사(경선 공론화)로 본선 진출자를 3~5명으로 압축한 뒤, 10일 전당원투표로 최종 선출한다. 차승세 후보는 전남대를 졸업했으며 전국자치

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인재혁신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4명 정도의 복수의 인사가 지원했으나 실질 경선 라인업에 오른 이는 차 후보가 유일하다. 경선 절차는 자격검증과 면접, 경선 공론화, 본선 토론, 전당원투표 순으로 이어진다. 경선 공론화는 배심원 심사와 정경 발표가 포함

된 형태로 9월 6일 치러진다. 9일에는 압축된 경선 후보들이 토론을 하고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 전당원투표는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당선자는 11일 발표된다.
 차승세 후보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경선 무대에 오른 만큼 지역의 기대를 전국의 선택으로 확장하겠다”며 “대표 선수라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치열하게 준비해 본선에서 당원주권의 실질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공장신축



창호(샷시)교체